

사법통치와 법치주의

일시 2016년 11월 11일 (금) 13:00-19:00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주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무르익어 가는 가을에 한 해의 곡식을 추수하는 마음으로 오는 11월 11일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학술회의의 주제는 「사법통치와 법치주의」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계, 시장, 시민사회 모두 갈등을 자체 내의 논리와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까닭에 많은 분쟁이 소송으로 전환하여 사법적(司法的) 판단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사법의 개입이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법적 판단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갈등과 공공정책을 둘러싼 분쟁에 사법이 개입함으로써 정치와 정책의 방향이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 의해 결정되는 폐해,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까지 사법이 침투하여 별종의 논리로 생활세계의 의미생산을 왜곡하는 문제점을 걱정합니다. 가히 사법이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공론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법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논리와 공정한 절차로 무장한 사법의 개입을 통해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법통치와 법치주의」학술회의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온 학자와 실무가의 말씀을 청취할 귀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석하시는 분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여 좋은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사법과 공론의 발전에 기여할 건설적 대안 마련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이 철 우 올림

프로그램

13:00 - 13:30	등 록	
13:30 - 13:50	개회선언	김종철 (연세대 법학연구원 부원장)
	환 영 사	김정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개 회 사	이철우 (연세대 법학연구원 원장)
13:50 - 14:40	기조강연	이 시대 사법부의 위상과 과제 - 6년의 경험으로부터 양창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
14:40 - 15:40	제1주제	법철학과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사회자: 김정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발 표: 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0 - 16:00	휴 식	
16:00 - 17:00	제2주제	정치적인 것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 - 헌법재판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일고찰 사회자: 백태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토 론: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 - 18:00	제3주제	사회현상으로서의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 사법(私法)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자: 백태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현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18:00 - 18:10	휴 식	
18:10 - 18:50	종합토론	학술회의 참석자 전원 사회자: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서울가정법원장)
18:50 - 19:00	폐 회	기념사진 촬영
19:00 - 21:00	만 찬	

오시는 길

